

논리
6강
평면
비교1

[비교] 사례

- ☞ [이주대] 2023 모의 인문
제시문 (가)와 (나)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400자)
- ☞ [중앙대] 2022 기출 인문사회1
제시문 (아)와 (자)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아)와 (차)에서 '쾌락과 행복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 서술하시오. (400~420자)
- ☞ [한국외대] 2022 기출 사회 T2
제시문 (나), (다), (라), (사)의 차이를 지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고, 그 차이가 발생한 요인을 논하시오. (500자)
- ☞ [숙명여대] 2022 기출
(가)의 상황에서 (나)의 배출권거래제와 (다)의 탄소국경조정제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비교하시오. (600자)
- ☞ [이화여대] 2023 모의 인문1
제시문 (라)의 'classification'과 제시문 (마)의 '삶에의 주의'를 비교하시오.
- ☞ [가톨릭대] 2022 기출 B형
제시문 (가), (나), (다)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500~600자)
- ☞ [세종대] 2021 모의 인문
제시문 (나) 마을과 (다) 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400~500자)
- ☞ [연세대] 2020 기출 사회
소문(rumor)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600자)

[비교] 개념

비교는 단일 유형으로서는 논술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비교 유형 사례에서도 살펴 봤듯이 정말 많은 대학교가 다양한 비교 유형을 출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교 유형을 출제하고 있다. 이는 비교 유형이 학술적 역량의 기초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논술에서 비교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제시문들을 요약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분석의 주체가 되어 대상 제시문들에 나타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공통 화제이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공통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어떤 쟁점들에 대하여 제시문들이 어떤 식으로 대립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점: 1) 공통 화제, 2) 화제와 관련하여 제시문들이 공유하는 구체적 속성

차이점: 1) 주제의식과 직결된 주요 쟁점에 따른 차이, 2) 보조적인 쟁점과 관련된 차이

비교에 답할 때, 제시문은 언제나 그렇듯이 논술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증거'로서 기능해야 한다. 제시문들을 소재로 한 어떤 '분석의 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꼭 비교만 그렇겠는가. 모든 글이 결국 '학생 자신의 글'로서 집필되어야 한다. 이 말이, 자신의 의견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란 것 정도는 이제 다들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주어진 논제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간명하게 서술한 글이 논술문이라는 말이다. 지금과 같은 비교 유형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견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고, 저런 부분에서는 저렇게 다르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 설명문이라고 보면 된다.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모의 1번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 하시오. (1000자)

이 문제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제시문들이 담고 있는 상이한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중략) 제시문들이 비교적 평이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였다. 반면, 제시문 각각의 내용에 담겨있는 뉘앙스와 함의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학생들 간 수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제시문 (나)의 소설 지문과 제시문 (다)의 철학 지문의 경우, 내용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논점을 포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적절한 대비점과 논의점들을 찾아내지 못한 답안이 많았다. 또한 제시문들의 논점을 적극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기보다, 단순히 세 제시문의 주제를 요약하고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답안들도 적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대학 답안사례]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 (나), (다) 각각의 논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나)와 (다)의 입장과 달리,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에 따르면,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에 의한 개인의 불행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운명적인 불행이라고 보았다. 타고난 운명은 타인에 의해 바뀌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행복의 정도 역시 타인과 무관했다. 운명에 따라 노예가 되어 겪는 불행은, 주인이 되어 겪는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취급 받았던 것이다.

반면에 (나)와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나)와 (다)는 개인과 타인 각각의 행복이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다르다. (나)에서 남편은 자신의 뜻과 행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상충할 때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함께 조금씩 행복해지는 길을 지향해야 하고, 한 개인만이 절대적으로 불행한 길은 지양해야 한다.

반면에 (다)에서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 즉 개인과 타인은 전체 행복의 합이 증진되는 결과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공리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당사자란 개인과 타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타인의 행복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나)와 공통된다. 그러나 (나)와 달리 (다)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의 총합을 중요시한다. (다)에 따르면 한 개인의 불행의 정도가 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 답안사례 평가]

이 답안은 각 제시문의 핵심을 대체로 잘 파악하였다. 또한 많은 답안들이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단순 나열하는 식으로 서술한 것과 달리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세 제시문을 일관성 있게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게 답안을 구성한 점¹⁾이 돋보인다. 다만 제시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고,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무관’하고 개인의 행복행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따른 것’이었다는 해석은 적확하지만, 그리하여 정해진 역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행복으로의 길로 여겨졌다는 설명이 부족하다.²⁾ 제시문 (가)는 주어진 사회제도에 순응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나)와 대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시문 (나)는 이 답안이 짚어냈듯 서로의 행복이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와 타협”의 문제라기보다 (가)와 대비하여 주어진 사회체제와 규범의 불합리함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거부의 문제로 읽어내어야 한다.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관점을 도입한 공리주의가 지니는 양면성을 잘 읽어냈다고 하겠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관점과 공동체적 수준에서 개인들 행복의 총합을 중요시하는 (다)의 관점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³⁾

1) 개념적 차원에서 대조점을 정리한 부분과 개념화된 쟁점을 제시한 부분들이 구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다.

2) 주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까지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3) ‘개인 Vs 사회’와 같은 교과상식적 대비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화여자대학교 2018학년도 인문2 모의 2번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학문적 지식은 다양한 의견들 간의 대립과 중재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중 상이한 주장들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술 문제는 학생들이 제시문들에 나타난 주장들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⁴⁾을 견지하고 있다. 본 문제는 교과서에 나온 지문들을 통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예시답안]

제시문 [다]와 [라]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유에 집착할 경우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제시문 [다]는 소유에 집착하게 될 경우, 심리적 향상성을 잃게 되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유물이 많아 부귀와 권세가 높은 경우, 이를 방만하게 활용하거나, 소유물에 미혹되어 환란을 면치 못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남에게 빌린 것이므로, 이를 인지하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제시문 [라]는 불필요한 소유가 인간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내면적 힘을 약화시키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을 낮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소유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인간의 본성과 창조성이 상실되고, 자연 및 동료들 등의 주위 환경과의 관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에 대한 의존이 낮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 예시답안 평가]

[문제 2]에서는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이를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답안은 소유에의 집착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글의 **공통적인 주장을 잘 파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두 글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명확히 논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소유에 집착할 경우, 권력, 권세 등과 같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방만하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란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라]는 불필요한 소유물에 너무 크게 의존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역량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 답안은 통일성 있는 형식을 통해 이러한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4)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쟁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미 문제 출제 당시부터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쟁점의 조건

비교 유형의 당락은 쟁점 설정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비교 문제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고, 차이점 부분의 우수성은 어떤 쟁점을 뽑았고, 그 쟁점에 따른 분석을 얼마나 간명하고 체계적으로 드러냈는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숙달해야 하는 ‘우수한 쟁점의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건 1) 유의미한 쟁점을 잡아라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유의미한 쟁점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제시문의 주제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쟁점을 잡으라는 것이다. 제시문의 핵심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쟁점을 잡으면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알맹이’들을 놓치기 쉽다. 위의 출제된 측의 답안 분석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출제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건, 명쾌한 차이를 보이는 쟁점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여부다. 그러니 지엽적인 부분들이 아닌, 우리가 독해 분석을 하면서 기록하게 되는 핵심, 즉 뒷받침을 받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쟁점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조건 2) 구체적인 쟁점을 잡아라

쟁점이 두루뭉술하면 초점이 흐려지고, 날카로운 분석이 나오기 어렵다. 비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답안이 ‘단순 요약형 답안’인데, 쟁점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면 그냥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요약형 답안이 나오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날카로운 분석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대비되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위 개념어’를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빨강, 파랑으로 대비된다면 ‘색’으로 쟁점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조건 3) 쟁점을 2개-3개 잡아라

쟁점을 1개만 잡으면 떨어지는가? 꼭 그렇진 않다. 대학 예시답안에서도 쟁점을 1개만 잡아서 분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체적인 쟁점을 2개, 3개 잡아야 하는가? 상대평가로 경쟁하고 있어서 그렇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잘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맹이’가 ‘더’ 풍성하려면 추가적인 쟁점을 성공적으로 잡아서 논하는 것이 좋다. 내용적으로 풍성한 것이 합격에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그렇다고 다다익선은 아니다. 쟁점이 너무 많으면 각 쟁점에 따른 분석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제시문의 수와 분량을 고려하여 제시문 2개를 비교할 때는 쟁점 2개, 제시문 3개를 비교할 때는 쟁점을 3개까지 잡아서 비교하도록 하자.

조건 4) 쟁점들을 연결하라

가장 수준 높은 비교는 유기적인 비교이다. 쟁점들 사이에 연관성(‘전제→결론’ 관계 선호됨)이 명쾌하게 나타나고, 그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한 글이 최고의 비교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관성 있는 쟁점으로 2-3개를 설정하고, 그 사이의 유기성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면서 분석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비교] 독해법

1. 견주어 보기

- ⇒ **제시문 하나를 먼저 정리하면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에 대한 상위 개념을 잡고, 그 상위 개념에 관련된 항목이 다른 제시문에도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일단은 더 쉬워 보이는 제시문을 하나 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독해법에 따라서 정리하면 된다.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제시문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때, 어떤 내용들로 쟁점이 잡힐지 모르니까 최대한 풍성하게 메모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된 핵심들과 유사한 항목에 대한 대립적 내용들이 다른 제시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제시문을 분석하면 된다. 먼저 읽은 제시문에서 ‘빨강’이 나오면 ‘다른 색깔’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읽으라는 것이다.

- ⇒ **공통 상위 개념(쟁점)에 대하여 하위 항목(각 제시문의 내용)도 동질적이라면, 이는 공통점이 되고, 하위 항목이 이질적이라면 이는 차이점이 된다.**

그렇게 각 제시문들 사이의 핵심들을 견주어 봤을 때, 동일한 상위 개념에 대한 동질적 세부속성들이 발견되면 공통점으로 정리하면 되고, 이질적인 속성들이 발견되면 이는 차이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도 동질적인/이질적인 속성을 상식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면, 그 문맥적 독해를 분석에 반영해도 된다. ‘행간을 읽는’ 것도 독해에 포함되고, 이런 포인트는 오히려 창의적인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질문하기

- ⇒ **첫 번째 쟁점은 ‘견주어 보기’로 잡아내고, 첫 쟁점에 질문을 해서 두 번째 쟁점을 잡는다.**
- ⇒ **질문은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1순위) 첫 번째 쟁점의 전제: 원인, 이유, 배경, ...

2순위) 첫 번째 쟁점의 결론: 결과, 영향, 시사점, ...

3순위) 첫 번째 쟁점의 세부속성: 정의, 범위, 특성, 정도, ...

4순위) 위를 제외한 육하원칙의 질문들: 언제, 어디서, 누가, ...

[비교] 논리평면

비교문은 분석문이자 설명문이다. 일정한 틀에 맞춘 체계적인 분석이 정리된 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에 대한 논술문을 읽을 때면, 필시 도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줘야 한다.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된 설명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논술문에 넣을 내용을 다음의 논리평면에 정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공통점	합집합 (화제)	교집합 (속성)
쟁점	주요 쟁점	보조 쟁점
(가)	핵심 + 상술	핵심 + 부연
(나)	핵심 + 이유	핵심 + 사례

- **합집합: 글의 화제, 주요 논의 대상**
- **교집합: 화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통 속성이나 판단 (생략 가능⁵⁾)**
- **주요 쟁점: 각 제시문의 주제의식과 관련한 주요 쟁점**
- **보조 쟁점: (가급적 주요 쟁점과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쟁점**

제시문들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되, 일관된 틀(기준, 즉 쟁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내용상 비교가 나오더라도 어떤 틀에 의한 분석인지 조금이라도 혼동되는 글이 나온다면 합격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 또한 표준전개를 훈련하면 다 해결될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5) 쟁점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체적인 공통점을 잡아낸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쟁점 외의 구체적 공통점 설정은 필수가 아니다.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면 된다.

[비교] 표준전개

대상(제시문)별 전개: 쟁점 간 연결이 강하거나, 적용 유형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교육에 대한 적절한 장학금 제도가 필요	
	쟁점		A 중심 가치	B 주요 효과
2	(가)	핵심	효율성 중심	빠른 발전
		상술	성적 장학금	성적 상승
3	(나)	핵심	형평성 중심	불평등 감소
		상술	국가장학금	소수자 배려

쟁점별 전개: 쟁점 간 연결이 약하거나, 비교만 단독으로 요구되었을 때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교육에 대한 적절한 장학금 제도가 필요	
	쟁점		A 중심 가치	B 주요 효과
2	중심 가치	핵심	(가) 효율성 중심	(나) 형평성 중심
		상술	성적 장학금	국가 장학금
3	주요 효과	핵심	(가) 빠른 발전	(나) 불평등 감소
		상술	성적 상승	소수자 배려

이화여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I 3-2번

📌 동물 복지에 대한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20점]

[바]

종(種) 우월주의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는 기본 원칙에서 예외라도 되는 듯,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도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자신이 사는 세상을 향상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닌 큰 뇌의 포유동물로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 부끄러워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서식지 파괴와 과잉 소비, 개체 과밀과 외래종의 만연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또다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 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이다. 과학자들은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종 우월주의는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게 하고, 이 서열의 최고 단계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는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다.

[사]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중략)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은식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동물 복지에 대한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20점]

[독해]

(바) 동물과 인간은 평등한 관계이고, 함께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 인간성을 지키기 위하여 동물에 대한 인도적 복지(배려)가 필요하다.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동물 복지에 대한 긍정적 관점	
차이점	동물 복지의 배경 -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 복지의 궁극적 목적
(바)	인간 = 동물	함께 생존(멸망 피하기)
(사)	인간 > 동물	인간성 수호

[예시답안] 507자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제시문들은 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쟁점 A	하지만 각 제시문은 이러한 견해의 배경이 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쟁점 B	그리고 동물 복지의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는 차별적 관점을 갖고 있다.
2	(가)A핵	먼저 제시문 (바)가 동물 복지에 찬성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의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다.
	(가)A상	(바)는 인간이 다른 자연물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간 우월주의는 오만하고 거짓된 관점이라고 말한다.
	(가)B핵	또한 (바)가 말하는 동물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공생이라고 할 수 있다.
	(가)B상	종 우월주의적 사고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길이며,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나)A핵	반면 제시문 (사)는 인간 중심성을 기반으로 동물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A상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동물 복지라는 것이다.
	(나)B핵	그리고 이러한 동물 복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성이다.
	(나)B상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는 인도적 노력이 곧 인간성 향상과 수호에 기여하기에 동물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종(種) 우월주의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는 기본 원칙에서 예외라도 되는 듯,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도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자신이 사는 세상을 향상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닌 큰 뇌의 포유동물로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 부끄러워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서식지 파괴와 과잉 소비, 개체 과밀과 외래종의 만연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또다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 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이다. 과학자들은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종 우월주의는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게 하고, 이 서열의 최고 단계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는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다.

종 우월주의
인간 중심주의
↓
오만한 생각
↓
파리 (똥, 똥 부지 ↓)

[사]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중략)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동물에게도
복지(행위)가
있다!
↓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사회적 합의)
!
불필요한
고통 배제!
!
최신화!
!
도덕적 의무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인간과 동물, 천지 만물에 대한 우월성의 관점과 이런 관점에 기반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런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며, 동물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제시문 [바]는 인간과 동물을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게 하는 종우월주의를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종우월주의가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며, 인간 역시 동물에 다름이 아님을 주장한다.

제시문 [사]는 마치 동물을 기계 취급하며 마취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했던 것을 비판하며, 동물들을 인간이 이용한다고 하여도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기 위하여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인간이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문항은 제시문 [바]와 [사]가 각각 종우월주의에 대한 비판 및 인간과 동물에 대한 정당한 관계 정립에 기반하여 공통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배경과 가치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에서 동물과 인간을 평등한 관계로 보고 동물복지를 주장한다면,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의 논지를 가지고 있다.

지문들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근거에 드러나는 관점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가 요구된다.

[대학 우수답안] 746자

제시문 [바]는 인간은 자연의 예외가 아니며 모든 다른 동물처럼 태어나 살다가 죽는 자연의 일부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고등 동물’이고 나머지 동물들은 ‘하등 동물’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극복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이러한 종 우월주의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며,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임을 주장한다.

제시문 [사]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과거 서양에서는 동물을 마치 기계처럼 여겨왔으나, 현재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생각은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제시문 [바]와 [사]가 각각 종우월주의에 대한 비판 및 인간과 동물에 대한 정당한 관계 정립에 기반하여 공통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배경과 가치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시문 [바]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동물과 인간을 평등한 관계로 보고 동물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면, 제시문 [사]는 인간을 동물 복지의 주체로 설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를 동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기 위하여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인간이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대학 우수답안 분석]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가 모두 동물 복지를 주제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러한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근거와 가치관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바]에서는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지구를 파괴로 몰아가고 있는 하나의 종(種)일 뿐이라는 주장을 파악해야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동물복지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제시문 [사]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해야 한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동물복지 주장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